



(주)비스켓 글로벌 조성훈 대표(사진 왼쪽)는 중국의 골드 리치 인베스트먼트사와 중국 전지역을 비롯 홍콩, 마카오를 총괄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총판 협약을 맺었다

(주)비스켓글로벌, 중국·홍콩·마카오 마스터 프랜차이즈 MOU 체결

환경이엔지(주)(대표 조기호) 자회사인 국내 토종 건강음료 브랜드 (주)비스켓 글로벌(대표 조성훈)은 지난 8월 16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중국 현지 법인 골드 리치 인베스트먼트(Gold Rich Investment)사와 중국 전 지역을 비롯하여 홍콩 및 마카오까지 마스터 프랜차이즈 총판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골드 리치사는 향후 5년 안에 중국 및 홍콩, 마카오 전 지역에 300개 이상의 비스켓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골드 리치 사는 중국 무한(武漢)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부동산, 건설, 유통, 식음료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 협약을 계기로 비스켓 글로벌은 중동의 교두보 두바이, 동아시아의 허브 싱가포르에 이어 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전 지역에 비스켓만의 D.I.Y. 천연주스 서비스를 알리게 됐다. 2016년부터 중국 최대 경제중심 도시인 상해를 거점으로 향후 5년 동안 중국 전 지역에서 최소 300개 이상의 지점을 오픈할 예정이며 또한 홍콩, 마카오 지역은 별도로 25개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탄생한 비스켓은 세계 최초로 D.I.Y.(Do it Yourself) 플랫폼을 도입한 건강음료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매장을 찾은 고객이 딸기, 바나나, 사과 등 30여개 이상의 과일 그림이 새겨진 별집 모양의 과일 캡슐 세가지를 바구니에 담아 계산대에서 주문하면 음료의 칼로리 및 비타민 등 영양정보 제공과 함께 즉석에서 천연 주스를 제공하는 전세계 최초의 고객 중심 D.I.Y. 주문 플랫폼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현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잠실 롯데월드몰, 롯데몰 수원, 명동 등에서 플래그쉽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는 두바이,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비스켓글로벌 조성훈 대표는 “이번 중국 전 지역 및 홍콩, 마카오 진출은 전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비스켓의 글로벌 이미지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글로벌기업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 투자유치 등을 통해 비스켓만의 D.I.Y. 플랫폼 사업을 전세계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